

- 주요 뉴스: 미국, 일부 자동차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방침 공급망의 자국 이전이 목적
  - 미국 3월 구인건수, 작년 9월 이후 최저. 4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도 부진
  - 독일 5월 GfK 소비자신뢰, 전월비 소폭 개선 스페인 1/4분기 성장률은 둔화
  - 중국 상무부, 미국 기업과의 협력 지원 가능. 외교부는 對美 강경 대응 주장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중국 외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협상의 기대, 양호한 기업실적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무역협상 진전,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상승세 지속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일부 철회 등으로 0.4%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글로벌 무역 긴장 완화 등으로 상승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3%, 0.2%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저조한 4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 등이 원인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2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429.5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32.3원, 0.35% 하락). 한국 CDS 하락

|    |      | 4/29일   | 4/28일   | 전일대비   |                 |           | 4/29일   | 4/28일  | 전일대비   |
|----|------|---------|---------|--------|-----------------|-----------|---------|--------|--------|
| 주가 | 미국   | 5,560.8 | 5,528.8 | +0.58% | 국채<br>금리<br>10y | 미국        | 4.17%   | 4.21%  | -4bp   |
|    | 유럽   | 525.09  | 523.19  | +0.36% |                 | 독일        | 2.50%   | 2.52%  | -2bp   |
|    | 중국   | 3,286.7 | 3,288.4 | -0.05% |                 | 영국        | 4.48%   | 4.51%  | -3bp   |
|    | 일본   | 휴장      | 35,840  | -      |                 | CDS<br>5y | 한국      | 31bp   | 32bp   |
|    | 한국   | 2,565.4 | 2,548.9 | +0.65% | 중국              | 60bp      | 61bp    | -1bp   |        |
| 환율 | 달러지수 | 99.21   | 99.01   | +0.20% | 위험<br>지표        | EMBI+     | -       | 393    | -      |
|    | 유로화  | 1.1387  | 1.1420  | -0.29% |                 | VIX       | 24.17   | 25.15  | -3.90% |
|    | 엔화   | 142.33  | 142.01  | -0.22% |                 | WTI유      | 60.42   | 62.05  | -2.63% |
|    | 위안화  | 7.2714  | 7.2874  | +0.22% |                 | 원자재       | 구리      | 482.3  | 484.1  |
|    | 원화   | 1,437.3 | 1,442.6 | +0.37% | 금               | 3,317.4   | 3,344.0 | -0.79% |        |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 금일의 포커스

### ■ 미국, 일부 자동차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방침. 공급망의 자국 이전이 목적

- 상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에서 조립된 차량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에는 25%의 부품 관세를 면제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 이러한 무관세 혜택을 이듬해에는 차량 가격의 10%로 줄이고 3년째부터는 중단. 이번 조치는 소급이 가능하며, 외국 업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아울러 25%의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다른 종류의 관세와 중복되어 적용되지 않을 예정. 이러한 결정은 완성차 업체들의 수입품에 대한 부담을 일단 줄이고, 이후에는 부품 공급망을 미국으로 이전하기 위한 의도. 당국은 이번 조치가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약속한 업체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
- 한편 러트닉 상무장관은 어느 국가인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으나(상대국의 의회 승인 등이 필요), 이미 한 국가와 무역협정에 합의했다고 발언.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무역 재설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
- 베센트 재무장관은 관세 조치로 중국에서 1천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여 중국을 압박. EU의 경우 무역협상에 앞서 내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면서, 유럽 일부 국가가 불공평한 디지털세를 부과한다고 지적
-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가 AI 전용칩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도. 구체적으로 AI 전용칩 수출에 대한 허가제를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

##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 미국 3월 구인건수, 작년 9월 이후 최저. 4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도 부진

- 3월 JOLTs 구인건수는 719.2만건으로 전월비 28.8만건 감소하여 9개월래 최저. 이는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노동 수요가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 다만 해고는 신규 고용의 어려움 등으로 작년 6월 이후 최저 수준
- 4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는 전월비 하락(93.9→86.0)하며 '20년 5월 이후 최저. 3월 상품수지는 사상 최대 규모인 162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 이는 관세 인상이 적용되기 전에 이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수입을 크게 늘렸기 때문

## ■ 미국 재무부, 2/4분기 국채발행 전망 상향. 부족한 현금 잔액 등을 반영

- 2/4분기의 국채발행 전망치를 5140억달러로 제시하여 이전(1230억달러) 대비 대폭 상향. 이는 부채 한도 제한 등으로 일반 계정의 현금 잔액이 당초 기대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 구체적인 국채 발행 계획은 30일에 발표될 예정

## ■ 독일 5월 GfK 소비자신뢰, 전월비 소폭 개선. 스페인 1/4분기 성장률은 둔화

- 독일의 5월 GfK 소비자신뢰지수는 -20.6으로 전월(-24.3) 대비 소폭 개선. 이번 결과는 관세 우려의 완화에 기인하지만, 소비자신뢰지수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여전히 부진한 상황. 스페인의 1/4분기 성장률은 0.6%로 전기(0.7%) 대비 소폭 하락. 다만 역내의 여타 주요국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

## ■ ECB 치폴로네 이사, 글로벌 무역전쟁이 역내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억제

- 무역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고 지적. 아울러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지만, 단기적 측면에서 디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피력

## ■ 중국 상무부, 미국 기업과의 협력 지원 가능. 외교부는 對美 강경 대응 주장

- 상무부는 미국 기업과의 정상적 협력을 기꺼이 지원할 것라고 발표. 일부에서는 이를 화해의 조짐으로 해석. 다만 왕이 외교부장은 유화적 대응이 오히려 ‘난폭자’를 고무시킬 뿐이라면서 강력하게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
- 한편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미국산 에탄에 대해 125%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최근 해당 관세가 철회. 이는 중국 내 기업들의 요구에 따른 조치

## ■ 세계은행(WB), '26년 주요 원자재 가격은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질 전망

- 내년 주요 원자재 가격은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와 공급 증가 등으로 금년에 12%, 내년에 5% 하락하여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

## 주요 경제지표

### ■ 주요 경제 이벤트(4/30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4분기 GDP, 3월 PCE 물가지수. 3월 개인소득 및 지출
- 유로존 및 독일 1/4분기 GDP, 중국 차이신 4월 제조업 PMI

##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 미국의 관세 충격, 개선된 예측 및 대비 등으로 이전보다 작은 편 - 블룸버그

(The Tariff Train Wreck Is Foreseeable and Avoidable)

- 트럼프 관세정책은 경기침체 우려를 키우고 있으나, S&P500지수는 일부 낙관론 영향에 과거 침체기 대비 고평가 상태. 이는 경기침체가 당장 시작될 가능성이 낮고, 기업과 소비자는 관세 충격이 사전 예고된 만큼 재고 확보 등 선제적 대응이 가능했기 때문
- 이러한 상황은 '22년 금리인상 시기에 투자자들이 예상된 충격을 대비할 시간을 확보하여 침체를 피할 수 있었던 것과 유사. 다만 현재는 가계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당시보다 악화되어 대응 여력이 제한. 이에 관세 철회 또는 중국과의 무역협상 진전 여부가 향후 경기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소지

### ■ 미국의 對中 무역전쟁, 신뢰 약화 및 전략 자산 훼손 등으로 패할 가능성 - Financial Times

(Why the US will lose against China)

- 미국은 주요 교역 국가에 對中 무역장벽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美中 무역전쟁도 점차 격화. 다만 이번 전쟁에서 미국의 승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호주, 인도, 일본 등 주요국은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미국과의 규모보다 크며, 미국은 잦은 정책 변화로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인식되기 때문
-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법치주의, 학계의 독립성, 이민정책, 동맹국과의 협력 기반 등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 이는 그 동안 성공을 이끌었던 토대를 훼손하기에 미국은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열세에 놓일 가능성

### ■ 신흥국, 美中 무역전쟁으로 중국 저가 물량 공세 피해가 심화될 우려 - Financial Times

(Emerging markets set to become battlegrounds in trade war)

- 중국은 對美 무역전쟁 대응을 위해 주요 개발도상국에 저가 제품 판매 확대를 추진. 이에 트럼프 1기 이후 이미 신흥국에 대한 중국 수출이 두 배 이상(17년 0.67조달러→18년 1.35조달러) 증가했고, 이는 전체 수출의 1/3이상을 점유. 이로 인해 중국은 미국 관세 위협에 강력한 대응이 가능(Jefferies)
- 하지만, 오히려 수십 년 간 무역에 기반을 둔 신흥국들의 성장 모델은 타격에 직면. 특히 철강, 화학, 섬유, 전자제품, 자동차 부문에서 각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해온 수출업체들은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급 급증 증가로 심각한 피해에 노출. 아울러, 美中 무역전쟁 심화 양상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전망

■ 미국의 중국식 국가주도형 경제모델 모방, 장기적으로 성장에 역효과 - 블룸버그

(China Is the Wrong Model for the US Economy)

- 미국은 산업정책 강화와 국가의 경제 개입 확대 등 점진적으로 중국식 경제모델을 활용. 이는 미국이 그 동안 제조업 일자리 감소, 금융위기, 저성장을 경험한 반면, 중국은 자본 통제, 산업정책, 환율 조작 등을 통해 고성장을 이루었기 때문
-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의 성장 둔화로 계획경제 모델의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 정부 주도 산업정책은 일정 수준 이상 성장을 지속하기 어렵고, 생산요소 증가에도 1인당 생산량은 줄어드는 수확체감의 법칙에 직면. 이에 시장 기반 시스템에 의한 자본 배분과 혁신이 정부에 의한 방법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

■ 미국의 무역 개선을 위한 국제 합의, 재정 및 통화정책 지원이 요구 - Financial Times

(The real lessons from the Plaza and Louvre accords)

■ 미국 증시의 부진한 투자심리, 과거와 같이 명확한 매수 신호는 아닐 소지 - Financial Times

(Has sentiment bottomed out?)

■ 미국의 은행권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완화 추진, 신뢰성 의심 시기에 부적절 - 블룸버그

(America Needs to Be Strong. Why Weaken Its Banks?)

■ 중국의 對美 관세전쟁, 엘리트 집단과 일반 계층의 경제적 격차 심화를 초래 - 블룸버그

(Xi's Tariff Fight Reveals China's Great Divide)

##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mailto:jsjeong@kcif.or.kr)